

명절 특수 끝 유통가, 어린이 특수 시작

이마트 오늘부터 완구 럭키박스...10가지 구성 1만9800원·13일까지 헬로카봇 행사 롯데마트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최대 50% 할인...홈플러스 럭키박스 최대 85% 저렴

대형마트 업계가 설 명절 이후 완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행사를 열고 어린이 손님 잡기에 나섰다. 명절을 맞아 조카나 손주에게 선물하려는 고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세뱃돈을 받아 장난감을 사려는 어린이 손님이 늘어나면서다. 이 때문에 설 명절이 끝난 직후가 어린이 날(5월5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에 이어 장난감 대목으로 꼽힌다.

◇이마트, 완구 럭키박스 선보여=이마트는 오는 7일 완구 럭키박스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마트가 선보이는 완구 럭키박스는 지난해 11월 3일 만에 3만개를 완판하는 등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이번에는 '헬로카봇'과 '공룡메카드' 등 인기 완구 10가지로 구성된 럭키박스를 2만개 한정으로 1만

9800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오는 13일까지 설 맞이 인기 완구 행사도 진행한다. '헬로카봇'의 극장판 2기 개봉에 맞춘 신상품 5종을 마린, 헬로카봇 전상품을 구매하면 '티라이오 시계팩'을 1만개 수량으로 한정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리틀퓨처북 카봇 펜 디럭스 세트'도 54% 할인한 2만9800원에 선보이며, 인기 애니메이션 '베이블레이드'의 '초제트 발키리(스타터)'는 1만 1880원, '초제트 스프리건'과 '크래쉬 라그나로크' 등 인기 블레이드 4종으로 구성된 '초제트 커스터마이징 세트'는 3만298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준비=롯데마트도 오는 13일까지 '해피 토이

저러스 데이'를 열고 행사기간 인기 완구를 정가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헬로카봇 삼총사 폰'은 2만9800원, '헬로카봇 극장판 티라이오'는 12만4800원, '다이너코어 에블루션2 얼티밋 킹 다이너'는 8만3300원이다.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준비돼 있다. '실바니안 패밀리 2778 초콜릿 토끼의 이층집'은 3만1300원에 선보이며, '영실업 시크릿 화장가방'은 6만4800원에 판매한다. '콩순이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가게'는 3만9400원이다.

또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레고 포 르세 911 RSR'은 23만9900원에 선보이고, '닌텐도 스위치'도 33만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설 맞이 우리아이 완구 선물대전' =홈플러스는 오는 13일까지 '설 맞이 우리아이 완구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5만3800원부터 12만5100원 상당의 다양한 장난감과 교육완구가 담겨 있는 '완구 럭키박스'를 최대 85% 할인한 1만 9000원에 선착순 판매한다.

또 '베이블레이드 시즌 1-2기' 40여종 전 품목은 50% 할인해 24500원~3만4850원에 판매하고, '공룡메카드 타이노소'는 50여종 중 3개 이상 구매하면 44%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요괴메카드' 30여종은 상품별 9900원과, 1만9000원, 2만4000원에 판매하는 '요괴메카드 모음전'도 준비했다.

헬로카봇 극장판 5종을 선보이면서 해당 상품 구매 시 헬로카봇 극장판 영화권도 증정하기로 했다. 직수입 1:14 RC가 10여종은 30% 할인, 보드게임 10여종도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밸런타인데이 여성속옷 매출도 '경풍' 매출 신장률, 연간 대비 10배 넘어...남성이 주고객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밸런타인데이에는 초콜릿뿐만 아니라 속옷 매출도 덩달아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 밸런타인데이 행사 기간 여성 속옷 매출을 살펴본 결과 행사 2주간 매출 신장률은 17.8%로, 연간 랜제리 매출 신장률 1.6%의 10배를 뛰어넘었다.

이 기간 여성 속옷 매출을 성별에 따라

나눠보니 남성 소비자가 56.8%로 여성 43.2%보다 많았다.

신세계백화점은 "통상 여성 속옷은 같은 여성이 사는 비중이 80% 이상인데, 밸런타인데이 직접 2주간은 오히려 남성 매출 비중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향수·명품·초콜릿 등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많이 찾는 품목 역시 이 기간 남성 소비자가 지갑을 열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속옷브랜드 비너스 매장에서 직원들이 랜제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비너스 균일가전' 최대 80% 할인

롯데백 광주점 오늘~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층 행사장에서 7일부터 14일까지 1년에 단 한번 열리는 '비너스 균일가전'을 진행한다. 6일 밝혔다.

올해 밸런타인데이와 졸업·입학시즌을 앞두고 행사 규모와 물량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보다 10%상당 늘어난 3억 원 상당의 랜제리를 선보이며, 가격도 최대 80%까지 할인한다.

브래지어는 1만6000원, 팬티 7000

원, 남성팬티와 런닝 각 1만1000원 등 균일가로 판매한다. 또 10만원, 20만원 이상 구매고객들에게 각각 5000원, 1만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 행사도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현 롯데백화점 광주점 랜제리 매니저는 "밸런타인데이와 졸업·입학을 앞두고 진행되는 행사로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산 맥주, 수입 맥주·와인에 밀렸다

대형마트 매출 3위로 하락

수입 맥주의 공세에 저가 와인의 추격까지 거세지면서 국산 맥주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때 대형마트 주류 매출 1위를 기록했던 국산 맥주가 지난해 수입 맥주와 와인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류매출에서 국산 맥주가 차지하는 매출

액 비중은 21.4%였다.

2015년 28.6%로 전체 주류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던 국산 맥주의 비중은 2016년 27.2%, 2017년 25.1%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21.4%로 줄며 3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2015년 17.7%에 그쳤던 수입 맥주는 2018년 25.3%까지 치솟았고, 와인 역시 21.5%에서 22.7%로 올랐다.

/연합뉴스

명절 고스톱 인기 시들

게임·동영상 시청 늘어

1~2인 가구 증가로 명절에 모이는 가족 수가 줄어들고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대표적인 명절 오락이었던 고스톱의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기간(설·추석 연휴 3일간) 화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명절 대비 매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 명절 때는 전년보다 7% 매출이 감소했고 2015년에는 3.1%, 2016년 9.7%, 2017년 1.4%, 지난해에는 5.6% 매출이 줄었다. 화투는 2011년까지만 해도 명절 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만큼 잘 팔렸다.

그러나 친지들과 명절 모임이 줄어들고 게임, 영화 등 다른 문화 콘텐츠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이제는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반면 귀성·귀경길 게임과 동영상 시청 등이 많아지면서 휴대폰 충전기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다.

미처 충전기를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선 사람들의 구매까지 물리면서 명절 기간 충전기 매출은 2014년 29.5%, 2015년 20.6%, 2016년 46.4%, 2017년 54.4%, 2018년 23.4% 등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BGF리테일 김석환 MD 운영팀장은 "예전보다 명절 연휴 가족들 간의 모임이나 규모가 줄어든 데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명절 편의점 매출에도 이런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1층 중앙광장에서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사랑의 S-BOX' 발대식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사랑의 S-BOX' 사업을 통해 서구지역 결혼가정 100세대에 연간 6000만원 상당을 후원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사랑의 S-BOX' 배달합니다

소외계층 100세대에 식품 등 생필품 전달키로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사랑의 S-BOX'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신세계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랑의 S-BOX'는 광주교육청과 광주 서구청, 서구 관내 4개 복지관(금호·쌍촌·무진·시영)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결혼아동과 차상위계층 등 영양관리에

선정해 광주신세계 부서별 1대1 결연활동을 진행하는 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최민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이라며 "올해 광주신세계 S-BOX 프로젝트를 시행으로 지역사회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